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일제의 조선합방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들

김 을 수

(이사, 민자통 상임의장)

이 땅의 지배계층에게 있어 미국의 강점과 민족분단은 더 큰 축복이 되었다. 식민통치하에서 온 겨레가 신음할 때 일제지배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에게 온갖 악행과 고통을 가하면서 호강을 누리온 그들인데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한 심판과 응징은 커녕 미국 강점 하에선 국가권력까지 거머쥐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배계층이 되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데까지 오히려 신분과 지위가 향상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일본 우익의 군국주의 재무장,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기도,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놓고 일본을 규탄하는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얼마 전 3.1절에 시청 앞 광장에 떼 지어 모여서는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을 찬양하던 함성, 내 나라 대통령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미국과 그 대통령 부시에게는 축복을 기도하던 목소리도 섞여 있고, 그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할 때 상기된 낫빛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항의하던 몇몇 집단들의 깃발들도 보이니 대중은 혼란스럽고 의식 있는 이들로서는 이 어찌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승전국 미국은 일본을 보루로 삼아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으려고 일본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그 명분이 되어온 천황제도를 온존시켜 침략과 전쟁범죄의 응징은커녕 면죄부를 주고 패전국 일본을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힘을 키워 주더니 오늘에 와서는 자국의 패권적 팽창정책의 첫 번째 동맹자로 만들면서 재무장을 적극 부추겨 일본의 우익과 정부를 한껏 고무해 오만방자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에 따르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그 피해국과 국민에게 사실인정과 사과도 안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국민들 사이에 다시 국수

주의가 되살아나고 우익들이 오만방자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미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일본의 저 오만방자한 기세를 꺾기 위해서도 우리는 민족공조의 단결된 힘으로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패권주의를 파탄시켜야만 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정부가 최소한 미국에 대해 대등한 외교를 펴는 당당한 자주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모든 분야의 지배세력에게는 그럴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후 미국이 우리 땅 남반부에 진주해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막고 점령을 영구화하기 위해 일제하의 군인과 경찰출신들을 끌어 모아 군대(국방경비대)와 경찰무력을 조직하고 백색테러까지 만들어 그 무력으로 민족진영의 제 정치세력을 분쇄하고 친일분자들을 굶어모아 반민족 외세(미국)영합 정치세력(한민당, 독립촉성회 따위)을 만들었으며 나아가 그들을 이용해 이남 땅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이 민족을 분단했고 그 친일파들을 통치 지배계층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의 의식 속에 뿌리내린 친미 숭배사상이 얼마나 공고하겠는가? 그들로서는 일제하 반민족 범죄에 대한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겨레 앞에 저지른 자신의 죄과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일제의 조선합방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한승조나 그것을 지지옹호하고 나선 지만원 같은 무리가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으며 용기가 없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내심 공감하는 무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지배수단을 틀어쥐고 반민족 숭미 이데올로기를 생산 주입하면서 이 땅 대중의 의식을 불구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들 우중(愚衆)이 어제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을 찬양하고 오늘은 일본대사관 앞에 몰려가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무엇을 괴이하다 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이 또한 어찌 이상할 것인가?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을 맺은 이 나라 정권의 탄생과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을 일본 정부와 우익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어찌 만만히 보고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미국의 지배정책을 파탄내고 일본의 오만함을 꺾어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끝장내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찌해야 하는가? 민족공조의 단결된 큰 힘으로 연북항미(聯北抗美)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이 땅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자주통일국가를 세우는 길에 일로매진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그동안 우리는 전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하고

그 ‘남측본부’를 결성하여 힘찬 통일사업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사업의 주 활동무대인 이남 땅에서 반민족적인 정권에 의해 조직과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 탄압되고 내부에 분파적인 작용이 가해지면서 조직은 축소되고 활동도 위축되어 본래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한편 통일노선에 있는 제 세력이 힘을 모아 투쟁함으로써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라는 큰 성과를 내왔다.

이후 공동선언에 바탕하여 당국간 그리고 민간 제 부문에서 회담과 교류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오면서 통일의 문은 점점 넓게 열렸다.

이에 민족진영에서는 광복60년, 분단60년, 미군강점60년이 되는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가지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범민련’과는 역할이 다른 또 하나의 3자연대 조직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민족이 함께 해야 할 행사는 남과 북 해외가 공동으로 할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문별 교류 협력 및 행사들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런 가운데 통일정세는 무르익어 갈 것이다.

또 하나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통일사업은 본질적으로 우리민족 대 미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당연히 하나로 힘을 모아 반미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당연한 논리로 남과 북은 투쟁조직을 하나로 묶어 내야 할 것이며 남쪽의 여러 갈래 조직들은 이 조직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론이 분분하다. 대략적으로 말해 남쪽의 정치지형이 거기까지 성숙해 있지 못하니 좀 기다리자는 논리와 적극적 뜻을 가진 단체들만으로도 먼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업을 펼쳐가면서 범위를 넓혀 가자는 주장이 맞서 있는 것이다. 앞의 논리도 맞는 주장이며 뒤의 주장도 옳은 이론이라 할 것이나 우리민족 대 미국의 싸움에서 남북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과 함께 절대적인 요청을 가지는 일이며 남북이 어렵게 단일한 투쟁조직을 꾸리면서 소수 조직만이 참여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큰 실책이고 과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폭넓고 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그리고 힘 있는 조직을 꾸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자연대 조직이며 전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옹계 세워내고 사업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일 또한 남측 통일운동 진영이 풀어내야 할 공동과제이며 시급한 사안이다. 밖에서 바라보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을 열어 놓고

모두가 참여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고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풀어 나가면서 투쟁의 중심영역인 남쪽 땅에서 범민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행사준비위’가 제 역할을 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제 구실을 하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가 꾸려져서 제 기능을 다한다면 자주통일의 시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 그때는 자존과 긍지를 가지고 미·일의 오만과 침탈에 힘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월혁명회보 제76호(2005.4)